# 컬럼비아 서브인턴십을 다녀와서

서정민(본과 4년)

귀국한지 한 달 여가 지났다. 사람들은 저마다 새까맣게 탄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우며 인사를 건넨다. '어떻게 지냈어?' '미국은 어땠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눈썹을 치켜올리고는 으음 하며 시간을 끌고는 한다. 미국 실습을 시작하고 얼마 동안은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새롭고 흥미로워서, 한국 가면 다 이야기해줘야지, 라며 작은 수첩에 모든 걸 적어두고는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서 익숙해지고 그 모습에 적응해가면서, 점점 무엇이 다른 점인지 헷갈려갈 때쯤 귀국하게 되었다. 단 한 달간의 경험이었지만 내 생각과 가치관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미국은 뭐가 달랐어?'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마치 커다란 책을 손에 들고서 어느 페이지를 펼쳐야 할 지 고민하는 사람처럼, 무얼 꺼내어 말해줘야 할 지 망설이고는 하는 것이다.

선택실습을 미국으로 가겠다고 생각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먼저 다른 시스템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의료 제도와 보험 구조의 양상이 어떻게 다르고, 그로 인해 환자 한 명 한 명을 보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험해보고 싶었다. 또한 의과대학생을 적극적으로 의료에 참여시키며 더 집중적으로 교육시킨다고 알고 있었기에 의사가 되기 전 실제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임상연구에 흥미를 느끼고 임상연구자로서의 진로를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와 진료의 비율을 비교적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임상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들었던 미국을 직접 보고 싶기도 했다. 또다른 이유는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이었다. 외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 제대로 알지는 못했지만, 더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것 같아서 궁금했다. 다른 사람 일에 오지랖을 덜 부릴 것 같았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문제가 되는 언행을 보이는 경우가 잘 없을 것 같았다. 영화에서 보고 책에서 읽은 그런 분위기와 문화를, 내게 익숙한 병원이라는 세팅에서도 볼 수 있을지 궁금했다.

많은 대학 중 컬럼비아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첫째는 뉴욕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미국 하면 떠오르는 아이콘과 같은 도시이기도 했지만,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장소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모든 이가 이방인인 커다란 도시에서라면 나도 더 잘 섞여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모두가 이웃사촌인 미국의 작은 시골 도시와는 분명 다를 테니까. 개인적으로는 뉴욕필하모닉의 공연을 보고 싶다는 점도 컸다. 내가 머무르는 내내 다른 페스티벌에서 공연하느라 뉴욕을 통째로 비웠고, 덕분에 빈 공연장만 구경하고 오기는 했지만. 둘째는 연구 중심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대학이라는 이미지 때문이었다. 다른 대학에 비해 연봉이 약간 낮은 대신 연구에 관한 자원과 지원이 무척 풍부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근거중심의학이 출발하고 정착한 곳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기대되었다.

컬럼비아에서 4주 동안 실습하게 된 프로그램은 신경계 중환자실 서브인턴십이었다. 컬럼비아가 워낙 신경과로 유명하고 또 매칭 지원 전에 미리 눈도장을 찍고 싶어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 배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하루에 12시간, 일주일에 6일 출근해서 레지던트 1년차 주치의 일을 제한적으로 맡아서 하며, 팀의 일원으로서 실제로 환자를 보면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한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미국

의 독특한 문화와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 서로 다른 삶의 모습에 대해 관찰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다. 매력을 느낄 기회를 갖지 못했었던 신경과학에 굉장한 호감을 갖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다. 일차적 의사결정권을 가지면서 굉장한 책임감 속에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익힐 수 있는 기회였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나중에 인생 경험으로 손에 꼽을 만한 일들을 많이 겪었다.

하지만 사실 가장 실습하고자 했던 프로그램은 완화의학이었다. 한국에서 실습하는 동안 굉장히 흥미를 갖게 된 분야였고, 컬럼비아는 완화의학 팀이 가장 잘 자리잡았다고 알려진 대학 중 하나였기 때문에 꼭 배정받고 싶었다. 프로그램 디렉터인 크레이그 블린더만(Craig Blinderman)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NEJM 아티클을 쓴 사람이었고, 여기 배정되면 이 사람 밑에서 실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김칫국 잔뜩 마시고 몇 달 동안 두근댔다. 실습 3주 전에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기 전까지. 하지만 같은 병원 건물 안에서 한 달간 지낼 수 있는데 그냥 돌아올쏘냐 하는 생각에 직접 연락을 취했고, 거의 메일에 에세이 한 편을 써 보내면서 공손하게 징징거린 덕에 매주 완화의료 다학제팀미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까다로운 환자 케이스를 주로 다루는 팀미팅에 참여하면서 미국에서 완화의료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 보고 들을 수 있었다. 또한 팀미팅에서 인사를 나눈 교수, 펠로우, 레지던트들이 내가 실습하는 신경계 중환자실로 컨설트를 보러 왔을 때 자연스럽게 참관을 부탁할 수 있었다는 예상치 못한 소득도 있었다. 많은 가족 모임에 함께 하면서 서로 다른 윤리적 문제와 가족 내 역학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고, 많은 유형의 환자 및 보호자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갖는 인식과 태도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 연명의료 중단과 사망선언 등 모든 과정에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고, 한국에서 동료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는 '호스피스 학생모임'에서 관련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4주 동안 실습하면서 발견한 미국의 흥미로운 점들을 의료와 문화의 두 측면으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로는 의료의 양상이 흥미로웠다. 우선 교육 시스템이다. 학생에게 정말 많은 일을 시키고, 많은 역할을 맡긴다. 이를 통해 학생이 책임을 나누어 지게 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느꼈다. 사실 모든 일이 학생에게 시키는 것보다 레지던트 본인이 해버리는 게 더 쉽고 빠르고 편할 터이다. 그걸 학생에게 설명해주는 게, 또는 학생에게 시키고 뒤에서 잘 되는지 지켜보는 게 훨씬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런 품이 많이 드는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만큼 학생들에게 큰 배움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생은 곧 주치의가 된다. 학생을 가만히 놔두고 나중에 좋은 주치의가 되어있기를 그냥 소망하는 것보다, 학생 때부터 가르쳐서 좋은 주치의가 되도록 만드는 편이 훨씬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교육이 항상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신기했다. 당연히 주로 교수가 펠로우를, 펠로우가 레지던트를, 레지던트가 학생을 교육하기는 하지만, 아이디어가 있거나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있다면 항상 주저하지 않고 그걸 팀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지금 병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보통 학생이 더 모르기 쉬울지라도 다른 분야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학생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설명을 부탁하고 기꺼이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 내 경우에는 영상 보는 법이었다. 영상의 윈도우를 조절하는 법이 다들 서툴길래 간단하게 마우스 좌우로는 감쇄계수의 평균값을, 위아래로는 폭을 조절하는 거라며 설명했더니 아예 모두 앞에서 설명하는 세션을 만들어주었다. 보고자 하는 물질의 HU와 구

분하고자 하는 물질들의 HU 차이에 따라 어떤 식으로 조절하면 원하는 영상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마우스를 움직여야 한다고 실제 영상으로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였고, 자그마치 '많이 배웠다'는 감사를 듣게 되어서 뿌듯하기보다는 당황스러웠다. 신경계 중환자실에서의 나는 신경과학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태반이라 매 순간 모든 것을 설명받아야 하는 답답한 학생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런 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떠올랐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당연하게 배움의 기회로 삼는 문화가 놀라웠다.

다음으로는 프로페셔널리즘이었다. 학생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고 전문가로서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문화가 학생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다고 느꼈다. 처음 느끼게 된 계기는 완화의료 팀미팅에서 한 발표를 보고 나서였다. 첫 팀미팅에 가자 블린더만 교수가 인사를 하더니 학생 발표가 둘 있을 테니까 재밌게 들으라는 말을 해서 기대하고 있었다. 처음엔 레지던트들이 발표를 하는 것 같았다. 한 명은 말기 환자의 증상 조절과 기분 조절에 명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문에 대해 정리하였고, 다른 한 명은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집에서 얼마나 기능을 회복하고 어느 정도 증상이 조절되는지에 대해 본인이 하고 있는 추적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가 길어지는 듯 싶더니 시간이 다해서 미팅이 끝났다. 학생발표도 들었으면 좋았을걸, 이라고 생각하면서 병동으로 걸어가던 찰나에, 갑자기 내가 방금 들은 두 발표가 모두 학생 발표였다는 걸 깨달았다. 정말 소름이 돋았다. 둘 다 팀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섞여있고, 자신이 전문성을 가지고 준비한 내용을 자신있게 내보였다. 거기다 자기가 A부터 Z까지 주도적으로 연구해 나가는 내용을 발표하는 모습에 나는 너무 자연스럽게 레지던트일 거라고 생각해버렸던 거다. 미국은 학생들이 너무 똑똑했다. 지식이 많다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행동하는 방식과 자연스럽게 역할을 맡아서 일하는 모습이 똑똑했다. 이런 모습이 기본으로 요구되는 사회였다면 한국 학생들도 분명 이만큼의 능력을 내보이면서 실습했을 것이다. 무엇이 사회 안에서 '평범'으로 공유되는지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었다.

둘째로는 문화가 흥미로웠다. 깜짝 놀랄 정도로 위계질서가 없고, 서로에게 창피를 주지 않으며, 배려하는 말하기를 한다는 점이 신선했다. 오후에 스테이션에 둘러앉아있노라면 교수, 레지던트, 간호사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자기 가족들 얘기를 하고는 농담을 던지고는 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자주 웃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벼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면서도 무례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특히 질문을 하고 받을 때 이런 점이 가장 두드러졌다. 회진 발표 중에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맞는 답을 하고 싶었다. 틀린 답을 하면 안된다는 한국적인 강박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표정에 티가 났는지 펠로우는 항상 '너한테 주의를 집중시켜서 미안한데,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라며 분위기를 풀어주고는 했다. 교수가 질문을 할 때도 '네가 처음 시작한다는 건 잘 알고 있으니까, 아는 만큼 말해볼래?' 라며 항상 부담을 덜어주었다. 나는 내 생각에 맞는 답이 없으면 잘 모르겠다고 답하고는 했는데, 다른 학생이나 주치의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답이라도 일단 뻥뻥 얘기하고는 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누구 하나 면박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정말 새로웠다. 무엇보다 상대방을 놀리지 않으면서 농담을 한다는 게 신기했다. 어떤 농담을 하는지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드러낸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나를 낮추지도, 상대방을 낮추지도, 제 3자를 낮추지도 않으면서 재미있는 말을 하기는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 누구도 공격하지 않으면서 유쾌할 수 있다는 걸 보게 되어서 즐거운 경험이었다.

또한 팀으로 일하는 문화도 놀라웠다. 나는 항상 미국은 개인주의적인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 놀랄만큼 개인주의이지만, 팀으로 일할 때에는 철저하게 팀 중심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고 느꼈다. 처음 영어를 배울 때, 한국어로는 '우리 학교', '우리 가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어로 말할 때는 '내 학교', '내 가족'이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배웠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병원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은 '나' 대신 '우리'를 넣어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치의가 자기 환자에 대해 발표할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어', '저번에 우리 생각은 이거였지', '우리는 이렇게 할 계획이야'라고 말하고는 했다. 책임자를 정해서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여러 층위를 거치며 함께 일하는 문화라고 느껴졌다. 예를 들어 각 환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일차적으로 주치의가 짜지만 매 순간 펠로우와 이야기하며 상의하고, 실제 결정은 회진 중에 교수부터 학생까지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의 결론은 팀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실수가 생겼을 때에도 그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으려 하지 않고 시스템적인 보완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는 대신 팀이 모두 나누어 지는 문화라서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점을 특히 잘 느낄 수 있었던 기회가 M&M 컨퍼런스였다. 누가 이 케이스를 담당했었는지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무엇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이끌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혹은 우리가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바꾼다면 이러한 의사결정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사려깊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폐쇄적이고 비생산적인 조직의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잘된 일은 집단 전체가 나눠갖고, 잘 안 된 일은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라 생각해왔다. 적어도 내가 일하고 실습했던 팀 내의 문화는 잘한 일에 대해서는 거기에 기여한 사람들 각각을 칭찬하고, 잘 못 한 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전제 하에 팀 모두가 개선책 및 예방책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앞으로 어떤 조직생활을 하더라도 반드시 기억하고 도입하고 싶은 문화였다.

이와 더불어 적극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시된다는 점이 신기했다. 한국에서는 학생들 모두 숨으려고 노력했었는데, 미국 학생들은 서로 튀고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학생에 대한 평가가 교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 같기도 했고, 그 평가 내용이 대강 똑같이 좋게 주어지지 않고 분명한 차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기도 했다. 좋은 추천서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본인이 관심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실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좋았던 점이라면, 내가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 눈치 보느라 숨기지 않아도 되었다는 점에서였다. 나는 병원 실습도 정말 재미있고, 신기한 케이스를 보는 것도 신나고, 모르던 걸 배우는 것도 즐거운데, 한국에서는 성적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서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다 튀는 걸 싫어해서인지 그런 기분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없었다. 그래서 안 힘든데도 힘들다고 하고, 재미있는데도 무표정을 가장하고는 했다. 미국에서는 내 맘대로 적극적일 수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다고 느낄수 있었다. 내가 좋아서 찾아본 논문을 다른 사람들한테 풀어놓으면 나대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사랑스러운 환경이 아닐 수 없었다.

다들 항상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신기한 점 중 하나였다. 내가 있던 신경계 중환자실은 응급의학과나 내과 레지던트들도 일정 기간 근무하러 오고, 또 신경과 레지던트더라도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오면 모르는 게 태반인 곳이었다. 그럼에도 다들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그게 당연하다는 듯 거리낌없이 물어보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인상깊었다. '후달

린다'를 기본 정서로 공유하다 온 나에게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다. 적어도 속으로는 후달리더라고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여유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면이 훨씬 편하고 빠르게 배우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능력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브랜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런 측면에서, 능력보다 성격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능력은 어느 정도 가르치고 배우면서 길러질 수 있지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달라지지 않으니까. 팀으로 함께 일하기에 최적인 성격의 사람이 있고 열심히 배우려 들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당장 아는 게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더라도 뽑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인상을 남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해 스스로를 브랜딩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느꼈다. 지금까지는 시험 성적이 좋으면 다른 모든 요소와 관계없이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같이 일할 사람으로 뽑힌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다.

선택실습을 하는 동안 개인적으로 가장 신기했던 것은 내 안의 한국적인 면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나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일이 많았고, 남들에게 익숙한 것들을 익숙하지 않게 보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미국 실습을 지원하면서 문화 충격이 심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그런 문화적인 다름은 정말 생활 속 어디에나 있었다. 교수한테 저런 농담까지 해도 되나? 내가 좀 더 똑똑하고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이런 중요한 걸 몰랐는데 왜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는 거지? 왜 다들 이렇게 여유로운가? 퇴원기록 하나를 언제까지 잡고 있는 거지, 저게 저렇게 오래 걸리는 일인가? 사소한 부분들에서 내가 이 문화와 다른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신선했다. 한국 문화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겪어본 적도 없는 미국 문화와 완전히 맞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내 가치관과 생각은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그 사이 어디엔가 끼어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미난 경험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어땠어?'라는 질문이 어렵다. '병원이 어떻게 달라?'라는 질문이라면, 똑같은 가이드라인 쓰고 비슷한 약 쓰고 EMR이 구식이고 EKG가 종이로 찍혀나온다며 줄줄줄 얘기해줄 수 있다. '근무환경이 어떻게 달라?'라고 묻는다면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하는지, 당직 수당이 얼마인지, 레지던트 한 명이 환자 몇 명을 보는지, 회진은 어떤 식으로 도는지 또 주르르 얘기해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어땠냐는 질문을 들었을 때 내게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다른 삶의 모습이다. 그래, 한 가지만 꼽아 말하자면 삶이 달랐다. 그것은 문화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고, 의료 환경의 차이가 반영된 모습이기도 하고, 가치관의 차이이기도 하고, 다양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가 저기에 있었다면 어떤 모습일까'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떠오르는 대답이기도 하다.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 것이다. 여행이 아닌 형태로, 이렇게 한 곳에 소속되어서 일정 시간 외국에서 살아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가치관의 차이, 문화의 충돌이란 게 무엇인지 처음 느껴본 경험이었다. 마치 파란색과 보라색 중에 뭐가 더 좋은지 고민하다가 갑자기 새빨간 세상에 떨어진 것 같았다. 전혀 다른 환경 안에서 생활하면서 색다른 점들을 많이 배우고 익힐 수 있어서도 좋았지만, 내가 그 모습과 어떻게 다른지가 더 명확해보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느끼는 기회였다.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정말 다른 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 이걸 성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타성에 젖어서 익숙한 것들로만 곁을 채우고 살던 중에 신선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소중한 한 달이었다.